

“전통사찰 원형 회복, 등재 지름길”

전통사찰 세계유산 등재 학술세미나서 학자들 한 목소리

“한국의 전통사찰은 다른 불교국가 사찰들과 차별화 된 한국문화 아이콘이지만 전란에 의한 잦은 중창으로 원형의 연속성에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사찰 환경이 원형을 이어온 것이라는 부분을 개선해야 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을 것이다.”

양산 통도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해남 대흥사, 순천 선암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있는 전통사찰의 등재를 위해 원형 회복에 정부와 불교계가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의 전통사찰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가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세계유산과 한국전통사찰의 재조명’ 학술대회에서는 역사·조경·문화·건축 등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쏟아졌다.

홍광표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한국조경학회 회장)는 “잠재등록된 7개 사찰의 조경현황 중 석단의 축조기법, 지당의 디자

인, 식물종의 잘못된 도입 및 위치선정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완전성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조경에 있어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또 유네스코에서 이런 부분이 창건 당시 전통을 이어온 부분이라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잡은 중창, 등재 단점으로 지적 연차·식물종 등 환경 개선 제시 사찰 역사 정확한 자료 주문

홍 교수는 전통사찰이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 불교전래지인 중국, 그리고 일본의 사찰과는 엄연히 다른 경관적 정체성을 보이며, 입지에서 자연친화적인 부분이 가중된 특징이기에 이를 부각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한국사찰이 가진 고유성은

사찰의 입지에서부터 발생한다”며 “자연 환경에 맞게 규모를 정하고, 지형적 조건에 어울리도록 건물과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한 점, 지형처리과정에서 불교교리를 접목해 수용한 점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일림 상명대 교양대학 교수도 “풍수사상이 유입되기 전인 9세기 이전 창건된 사찰은 한국적 자연풍수에 의해 입지했기에 높은 가치를 지닌다”며 “창건 당시 화엄·자장·법화·선교 등 각각의 사상에 기초해 창건된 뒤 시대적, 사회적, 교리적 특성을 반영해온 전통사찰은 한국불교의 특징인 통불교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한국 전통사찰의 창건연대의 불확실성, 현재 사찰위치가 창건 당시 사찰인지 신뢰성의 문제가 있으며, 중창 등을 거쳤기 때문에 입지조건이란 요인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정확한 근거자료를 밝혀내는 등 입지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병삼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임진왜란을 비롯한 국난 속에 중창 등을 거쳤지만 이 과정에서 사찰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온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전통사찰들은 전란 이후 중창과 중수를 통해 가람영역을 확대하고 수행의 전당이 된 것이 오히려 특장”이라며 “봉정사는 대웅전 영역 확대, 통도사는 삼전 체제 확대, 대흥사와 마곡사는 하천을 넘은 사역의 확대 등을 통해 사찰이 지닌 본 의미를 더욱 충실히 확보해나갔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이어 “중수 과정에서 왕실뿐만 아니라 승속의 시주들이 이어진 것은 당시 한국인 모두의 염원이 모아진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상해 건국학과 교수는 “한국의 전통사찰은 한국만이 가진 선·교 융합의 통불교적 사상과 생활 문화의 종합적 기능을 함께 지닌 곳”이라며 “자연경관에 한국전통 건축의 미를 합친 유산의 전형으로서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추진위는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양산 통도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등 총 7곳의 전통사찰에 대해 2017년까지 등재를 위한 연구와 조사, 국내 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유네스코 현지실사를 거친 뒤 2018년까지 등재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 3기 자문위원회 위촉

포교·신도정책·포교연구 분야에 스님·재가자 32명 위촉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포교의 전문·효율화를 위해 포교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스님과 재가자들로 구성된 제3기 포교원 위원회를 위촉했다.

포교원은 1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포교원 3기 위원회 2차 연석회의’를 열고 △포교 △신도정책 △포교연구 등 3개 분야에 스님 29명, 재가자 3명 등 총 32명을 포교원 제3기 위원으로 위촉했다.

포교위원회 위원으로는 불암사 주지 일관 스님, 대륜사 주지 덕신 스님, 광명회 포교사단장 등 9명이 구성됐다. 신도정책 위원회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 백련암 감원 진각 스님,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 10명이 위촉됐으며, 포교연구위원회는 금강선원장 해거 스님,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등 13명이 위촉됐다.

자문위원들은 향후 2년 동안 포교원과 관련부서에서 시행될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문을 맡게 된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불교자원을 대중화 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위촉된 포교 자문위원회는 포교현장에서 쌓은 지혜를 공유해 포교원이 나아가야 할 정책에 밑거름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원은 2014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2015년 포교원 전략 과제 및 핵심사업 등을 소개했다.

포교원은 “중앙과 교구본사 포교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추진한 인촌·제주·서해내포 지역 포교 활성화의 후속조치에 대한 연장 사업으로 내년에도 지역 세 곳을 선정해 연찬화와 지역별 워크숍을 가질 계획”이라며 “이밖에 불교 명상 대중화를 위한 명상전문가 협의의 기구를 운영해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포교의 전문·효율화를 위해 포교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스님과 재가자들로 구성된 제3기 포교원 위원회를 위촉하고 2015년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공단 주차장 허용하면서 사찰 주차장은 불허”

원주 구룡사 주차장·소방로 공단측 반대로 무산

사찰의 소방도로와 경내 주차장 건립은 불허하면서 수의 기반을 위해 국립공원 내 버젓이 주차장을 만드는 공단관리공단의 일관성 없는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강원도 원주 구룡사(주지 적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폐교부지내 계획한 주차장 건립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사무소와 사찰 인근 상가 및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좌초되면서 시름이 깊어졌다.

주지 적천 스님은 “등산객들과 사찰 신도들이 사찰 경내 주차장이 없어 3Km 이상의 먼거리를 걸어 와야 하는 등 구룡사를 출입하는데 불편한 점들이 많아 경내 폐교 부지에 50대 정도 주차시설을 갖춘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금강송 등 산림훼손을 이유로 지역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을 선동해 공단측이 반대하고 있다”고 강경한 어조로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스님은 “폐교부지에 한번 가본다면 설사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든다해도 환경훼손이 필연한 나무를 베어내는 일은 어불성설이란걸 금방 알텐데 왜 반대하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님은 “환경훼손 때문에 구룡사 주차장은 반대하면서 구룡사 반대편인 황

골 입석사 인근과 심림면 상림사 방면에는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라며 “이는 공단측이 주차장 이용객이 감소되면 수입이 격감할 것을 걱정하는 속내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구룡사는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시설물 철거’에 따른 확인 소송중이다. 적천 스님은

2004년 진입로 없어 소화 못해 소방로 필요해도 공단 ‘나몰라라’ 주차장 반대도 ‘이중잣대’ 논란

“차량 회차 구역과 상가들의 임대계약 기간이 올해말로 끝나면 연장계약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 요청하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천 스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현안문제인 소방도로 진입로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적천 스님은 “주차장 건립은 마음을 접었지만 소방로는 반드시 공사를 해야한다. 10년전인 2004년 구룡사에 화



원주 구룡사는 진입로가 협소해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그래서 구룡사 측은 소방도로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지만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다.

재가 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대응전이 불타는 아픔을 겪었다”며 “소방도로 건립도 환경훼손이라고 반대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의 부당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실제로 과거 큰 화재를 경험한 구룡사는 현재 방재시스템을 만만히 갖춘 상태지만 경내까지 이어지는 소방도로는 확보하지 못해 산불이 빈번한 계절이면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태다. 이 역시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관련법도 문화유산 지구로 지정된 구룡사는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사찰 중축이 대

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내에서만 가능해 현실상으로는 소방도로 건설에 어려움이 따른다. 적천 스님은 “소방도로는 법적으로 6m 정도지만 현재 매표소부터 일주문 전까지 약 3백미터의 일부 구간이 4m도 채 안돼 이 구간만 확장하면 되는데 이마저도 관리공단측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차장 및 소방도로 건립을 둘러싸고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룡사 경내 화장실에 사찰과 협의 없이 몰래 녹음장비를 설치해 구룡사가 강하게 항의하자, 치악산 관리사무소측이 녹음기를 몰래 철거해 반축을 사기도 했다.

원주 구룡사=김주일 기자

“이타행의 본보기, 영원히 기릴 것”

동국대, 9일 단원고 교사故최혜정 동문 추모비 제막

세월호 침몰 당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단원고 교사故최혜정 씨의 추모식이 모교인 동국대에서 동문 후배들의 추모 행렬 속에 열렸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12월 9일 동국대 사범대 건물 앞에서 추모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추모식에서는 최 씨의 숭고한 정신을 후배들에게 전하기 위한 추모비 제막도 함께 진행됐다.

김희옥 총장과 유가족, 역사교육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추모식은 △故최혜정 씨의 약력보고를 시작으로 △추모비 제막 △헌화 및 묵념 △김희옥 동국대 총장 추모사 △역사교육과 재학생 추모 항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희옥 총장은 추모사에서 “너희부터 나아가 선생님이 나가겠다”고 한故 최혜정 동문의 헌신적인 마지막 말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다”며 “故최혜정 동문을 제자 사랑과 이타행의 본보기로 삼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동학의 교정에 추모의 비를 세워 송고한 뜻을 기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가족은 “여기에 모인 후배들이 혜정보다 더 좋은 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감사한 마음을 절대 잊지 않고 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동국대 82학번 동창회는故 최혜정 추모기금 1500여만 원을 학교에 전달했다. 동국대는 이 돈을 사범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개정판

운주사 불교서적

교부문고 종교서적

연속 27주 베스트셀러 1위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진실을 밝혔다!!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안내

- 현지사 대전분원 정기법회
- 12월 21일 (일), 오전 9시 30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53회)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 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가길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 문의전화 T. 033-243-1795, 243-1787 • 불서출판 운주사 T. 02-3672-7181

문의 전화 033)243-1795 042)525-5325